

올림픽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는?

프레임

최인철 지음

어느 환경미화원이 이른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늘 표정이 밝았다. 이유가 궁금했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나?'고 물었다. 환경미화원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미국 코넬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 은·동 메달리스트의 감정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게임 종료 후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 동메달리스트의 행복점수는 10점 만점에 7.1, 은메달리스트는 4.8로 나타났다. 더 낮은 성취를 거둔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행복해한다는 연구다.

이를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프레임'(Frame)으로 설명한다. 프레임은 사진찍기 전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사각 틀을 만들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훨씬 상위의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세상을 바라봤다. 또 메달리스트의 성취도 다른 성취와의 비교를 통해 달리 해석된다.

최 교수가 지난 2007년 첫 선을 보인 '프레임'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통찰을 일깨우며 30만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근 출간 10주년을 맞아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저자는 시대변화에 맞춰 새롭게 다양한 사례와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판보다 100쪽을 늘렸다.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한 펩시콜라의 마케팅 등 실제 사례를 들어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던진다. 펩시 존 스킨리 사장은 당초 코카콜라 특유의 병 디자인을 뛰어넘는 더 세련된 병을 만들려고 애썼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펩시콜라를 더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이후 대규모 소비자 패턴 조사를 실시한 후 집으로 들고 가기 편하게 다양한 패키지상품을 내놓아 대성공을 거뒀다. 이처럼 '프레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다.

저자는 '행복'을 예로 들어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사람의 행동은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을 균형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행복은 '주변 사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행복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한다. 웃는 사람에게는 웃는 친구들이 많고, 불행한 사람들 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 책은 '프레임'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분석 틀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이 경제학자가 아닌 심리학자(대니얼 카너먼)여서 화제였다. 그는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이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 비롯된다. 연구에 따르면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15% 증가한다.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2016 유로축구'에서 선보인 각 나라의 서포터즈 모습.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을 소개한다. 타인과 비교하는 '비교 프레임'을 버리고, 긍정의 언어로 말하고, 닮고 싶은 사람을 찾고, 주변 물건들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작가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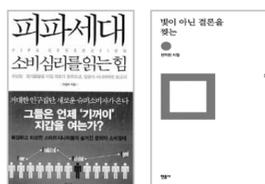
매순간이 문장이다. 문장이 살아 있어야 삶에 생명력이 있다. 글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이지, 부사가 아니다." 글 쓸 때마다 '붓방아질' 하는 이들에게 와 닿는 문장이다. 바로 문제는 '프레임'이다. <21세기북스·1만6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피파세대 소비심리를 읽는 힘=세대의 사회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전영수 교수의 책. 1000만 인구가 시니어마켓의 잠재 고객으로 곧 합류할 전망이다. 2050년이면 은퇴세대가 인구의 40%에 육박한다. 기업에게는 개인에게든 결코 놓칠 수 없는 거대시장이다. 성공을 위해선 시니어마켓을 둘러싼 선행경험에서 실패원인·성공 전략을 분석하는 건 필수다. 다행히 일본이 먼저 고령소비와 관련한 전국과 지역을 모두 경험했다. 그 전국과 지역을 책에 담았다. <라오의·1만8000원>

▲빛이 아닌 결론을 쫓는=2012년 개간지 '세계의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안미린 시인의 첫 번째 시집. 시인은 비스듬한 차이들과 유사성에 대해 사유하는 시, 부드럽게 거칠고 거칠게 부드러운 시, 과감하게 생략하고 비약하고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어법 그 자체라는 호평을 받으며 9년의 시로 등단했다. 지난 4년 동안 발표한 시들이 총망라된 이번 시집에서는 안미린 시인만의 독특한 언어 감각으로 세워진 또 하나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민음사·9000원>

▲뺑을 위한 경제학=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원용찬 교수의 책. 탐욕과 부패가 만연한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첨예한 가운데, 저자는 '뺑'으로 상징되는 생명을 화두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역사와 문화, 사상과 철학, 과학까지 아우르며 인류가 거쳐온 경제사상의 다양한 모습을 살핀다. 책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염원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사회적 상상력으로 그려내고,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기를 권한다. <인물과사상사·1만4000원>



▲중독은 없다=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바뀌는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중독'이라는 잣대로 재단하고 있지 않은가. 책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아이들의 디지털 사용을 중독의 시선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디지털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지, 아이들이 이토록 디지털 기기에 밀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모색한다. <울리시즈·1만3000원>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부패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부패를 초래한다." 유종성 호주 국립대 교수는 기존 상식을 깨고 부패와 불평등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새롭게 뒤집어 주장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제도에서 부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힘든 '양극화된 경제구조'일 수 있다. <동아시아·2만3000원>

위고·로맹 등 예술가와 문인에 얽힌 풍부한 이야기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예술가편·문인편

조성관 지음

파리는 19~20세기 수많은 예술가들의 로망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예술가들 뿐 아니라, 파리에 아로새겨진 그들의 흔적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지난 2007년부터 '도시가 사랑한 천재들'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언론인 조성



관씨가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예술가편과 문인편을 동시에 출간했다. 빈, 프라하, 런던, 뉴욕, 페테르부르크를 이은 6번째 도시로 조명하고픈 인물이 많아 2권으로 기획됐다.

'문인편'에서는 '레 미제라블'의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 드레퓌스 사건

당시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써내며 '프랑스의 양심'으로 불리는 에밀 졸라의 흔적을 쫓는다.

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르셀 프루스트와 '제 2성의 작가' 시몬느 드 보부아르, 오노레 드 발자크 등 5명의 숨결을 찾아 떠난다. '예술인편'에서는 현대 조각의 아버지이자 카미유 클로델과의 연애로도 유명한 오귀스트 로댕, 수많은 신선한 발상으로 세계 패션계를 선도했던 코코 샤넬, 현재 파리를 대표하는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프 에펠을

만날 수 있다. 또 '장밋빛 인생' 등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여전히 큰 감동을 전하고 있는 에디트 피아프와 화가 모딜리아니의 삶도 담았다.

저자는 각각의 예술가와 문인에 얽힌 풍부한 이야기, 작품세계와 함께 그들이 작품을 생산했던 작업실, 그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집, 마지막 안식처인 묘지 등 파리 곳곳을 직접 발로 누비며 현장에서 쓴 글들을 엮었다.

울컥거리 제작된 책은 알차고 풍성한 자료 사진과 현장에서 찍은 생생한 사진들로 볼거리를 더한다. <열매들·각권 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첨단 메가박스 1분! 정부합동청사 1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주차 완비 (50대)

1층 (상가) 120평
2층~7층 오피스 56개
8층 (41평) 스카이라운지

※ 보증금 2억 월수익 3,000만 ※

▶ 매가 38억 (용 25억 가능)

첨단 소형 연구실(사무실) 임대

10평~12평 (총 56개)
신축건물, 주책 400평 완비 (60대 가능)

▶ 보 500만 / 월 35만

010-7384-7800

평택 토지 전문

120만평 LG전지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 70만평) (미군기지) (KTX 개통) (평택 항)

(미군기지 - 5만평) (평택항) (현덕지구 70만평)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도 후회 없습니다.

전원주택지 공장부지

경기도 평택시
순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9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경기도 화성시
전남 IC 5분 !!
평 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지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10억투자 10억 순수익
▶ 매가 10억 (평당 56만)

※ 토지 2억 ~ 30억 까지 다양 확보 ※

경기도 화성시 A.P.T 투자 가장저렴하게 드립니다
※ 실무자 1천 만원
A.P.T 34평 ▶ 매가 2억 4천만원 (용 2억 보3천 월 70만)

010-6670-98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울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4천만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 상무나이트역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

전남 영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중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박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용 5천)

062-527-7600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① 북구 용봉동 (근린시설)
토 179평, 건 155평
용봉동 신동아 아파트 인근, 식당건물
▶ 감정가 7억4천 → 최저가 7억4천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9평
신가중 부근
룸 8개 - 월수익 250만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인근,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4억9천

경매교육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매주 오픈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압입찰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전 경험자 우대, 환영

010-6834-4800